

시멘트 가격 10% 인상 추진

동양시멘트, 톤당 8만1000원대로 ... 레미콘·건설은 반발

시멘트 생산기업들이 2012년에 이어 2013년에도 시멘트 가격을 10% 정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장에 따르면, 동양시멘트는 2월7일부터 시멘트 가격을 올리기로 결정했다.

시멘트 시장은 2012년에도 시멘트 가격을 9% 인상했고 2013년 인상폭도 10% 정도로 2012년과 비슷한 수준이며, 시멘트 가격은 톤당 7만3600원에서 8만1000원대로 인상된다.

동양시멘트가 가격을 올리면 다른 시멘트기업들도 줄줄이 가격을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과 레미콘 관련기업들은 시멘트 가격 인상 움직임에 반발하고 나섰다.

건설기업 관계자는 “건설 경기도 좋지 않은데 시멘트 가격을 올리면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건설 시장이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레미콘 관계자도 “납품가격 연동제를 적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법제화가 안 돼 시멘트 가격이 오르더라도 레미콘 가격에 인상분을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며 “이미 오르기 전 가격에 레미콘 계약을 체결한 관련기업들은 가격 인상으로 어려움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시멘트 가격 인상이 확산하면 레미콘기업들도 잇따라 가격 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측된다.

시멘트는 레미콘 원재료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2012년에도 시멘트 가격이 오르자 레미콘기업들도 9% 정도 가격 인상을 단행했으나 실제 가격에는 인상분이 모두 반영되지 않아 영세 레미콘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서울과 경인지역을 기준으로 레미콘 가격은 입방미터당 2011년 5만6200원에서 2012년 5만9900원으로 평균 7% 정도 인상됐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1/30>